재난시대와 불교

지구 살리는 실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과 홍수, 기록적인 폭염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자연의 균형이 무너진 자리에는 생명의 위협과 공동체의 고통이 뒤따른다.

불교는 일찍부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緣起)의 가르침을 설해 왔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인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한 실천적 지침이 된다.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일상의 작은 변화는 공동체와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출발점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찰 안에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구현될 때, 자비는 모든 생명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된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행하는 단체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쌀뜨물서 시작한 지구사랑…공생 환경교육으로 잇다

EM 지구사랑작은실천

생활 속 환경정화

2004년 EM 발효액 활용 시작
발효기 보급 생활 속 실천 확산
탄소중립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도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환경을 지키는 일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무심코 흘려보내던 쌀뜨물을 발효해 생활 속 환경정화에 활용하고 그 경험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하며 탄소중립의 의미를 가르치는 불교계 환경운동이 있다. 한마음선원의 'EM지구사랑작은실천'이다.

환경운동은 대행 스님의 공생(共生)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했다. 2004년 쌀뜨물을 이엠(EM·유용미생물군)으로 발효해 생활 속 환경정화에 활용하기 시작한 한마음선원은 관련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활용법을 보급하며 환경 실천의 범위를 넓혀 왔다. 시작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쌀뜨물이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뜨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대신 발효시켜 다시 활용하는 작은 시도가 환경운동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2010년에는 EM 쌀뜨물 발효기를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했다. 2018년 4월에는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한 13명의 대중 스님이 참여하는 승가 결사체로 'EM지구사랑작은실천'을 발족했다. 이후 2019년 대구·포항지부, 2020년 강릉지부, 2021년 진주·광주·제주·공주지부가 설립되며 전국 단위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자체 연구·개발한 EM 스마트 발효기는 특허를 취득했고 필요한 지역공동체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직접 환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EM지구사랑작은실천은 대행 스님은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의 발현이요, 진실한 실천이 도입이다"



EM 활용에서 시작된 환경 실천은 교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직원역량강화연수 모습.

고 강조한 가르침을 환경운동의 방향으로 삼아 왔다. 환경보호를 구호나 지식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수행의 연장이라는 의미다.

환경 실천은 교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환경부 산하 국가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 대상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이어 왔다.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을 배우도록 영역을 넓힌 것이다.

교육에서는 환경문제가 멀리 있는 거대한 의제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과 물, 음식, 생활습관과 연결돼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학교에서 배운 환경 실천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행동을 강조한다.

한마음선원과 함께 불교계 환경운동과의 연대도 이어졌다. 한마음선원은 2021년 불교환경연대의 녹색사찰로 등록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빈그릇운동과 EM 활용 등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우수 녹색사찰로 선정됐으며 2024년에는 EM 보급과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증진 활동으로 환경상을 받았다. 지구사랑작은실천 사회적협동조합이 2022년 설립된 것도 큰 성과다.

기후위기는 한 번의 캠페인이나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이어 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하며, 이를 지속할 인력을 길러내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육 참여 인원뿐 아니라 교육 이후 생활습관의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실천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앞으로 살펴야 할 과제다.

쌀뜨물을 다시 쓰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한 이들의 환경운동이 교육과 지역사회의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공생의 가르침은 오늘의 환경문제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임은호 기자

"쓰레기 직접 줍고 나면 생각도 달라져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찰정화 활동

만경사 · 보은사 등 24곳서 활동
녹색불교교육으로 '환경보살 양성'
"환경보호는 결국 생명 지키는 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공동대표 해청 스님이 강조하는 불교환경운동은 '실천'이다.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채식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에서 출발한다. 그 바탕에는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해 존재한다는 불교의 연기와 생명존중 사상이 자리한다.

2008년 창립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기치로 환경교육과 생태순례, 환경정화, 기후위기 대응 등 불교적 환경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담론에 머물게 하지 않고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실천으로 확장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찰 환경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이 '플로깅라이프'이다.

"사찰에는 쓰레기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바위틈과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살펴보면 오래된 쓰레기가 많습니다. 직접 줍고 나면 참가자들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환경정화활동은 24회까지 이어졌다. 올해도 만경사와 보은사, 원효사 등을 찾아 도량과 주변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최근에는 활동 영역을 도심까지 넓혀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도 플로깅을 진행했다.

해청 스님은 정화활동이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108배를 하듯 환경정화도 몸으로 하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생기는지를 생각하고, 소비와 생활방식을 돌아보게 됩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해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생명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찰 환경개선 활동인 '플로깅라이프'는 우리가 다니는 사찰부터 깨끗하게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해 24회까지 이어졌다. 사진은 원효사 정화 활동 후 기념촬영.

환경실천을 지속시키는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환경연대는 녹색불교아카데미와 녹색불교경전학교를 운영하며 불교의 가르침으로 생명과 자연을 바라보는 '환경보살'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회원들은 '플로깅라이프'를 비롯해 생태문화기행 '산애들애', 대중공양모임 '초록세상' 등 소모임에 참여하며 배움을 실천으로 이어간다.

생활 속 변화도 강조한다.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종이팩 분리배출, 채식 캠페인 등을 펼친다. 복날에는 '복날채식 캠페인'을 통해 공장식 축산과 탄소배출 문제를 알리고 있다.

사찰과 개인에서 출발한 환경운동은 산과 강으로 이어졌다. 6월에는 전국 불교환경단체들과 '제2회 영산강 생명살림순례'를 진행했다. 죽산보에서 광주까지 영산강을 따라 걸으며 강의 생명과 4대강 재자연화를 되새겼다.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넓혀가고 있다. 제56주년 지구의날 광주행사를 주관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했으며, 탈핵 등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회적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청 스님은 기후위기 시대 불자들에게 '조금 불편한 삶'을 제안한다. 덜 쓰고, 아껴 쓰고, 육식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린 자연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줘야 합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이어온 18년의 발걸음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생명을 살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답을 이들은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행동에서 찾고 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그 작은 실천이 바로 일상에서 행하는 자비의 수행이기 때문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도모집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7-7호 법인등록 194621-*******)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 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종회의장 법륜

승 정 원 장 월해 호 법 원 장 해월
감 찰 원 장 성호 교 육 원 장 영호
포 교 원 장 덕해 포 교 부 장 장문
호 법 부 장 문경 서울교구원장 법혜
감 찰 부 장 경오 경북교구원장 천호
대전교구원장 수진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입종사찰 : 전남 동산사 무명스님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마음108종도일동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 0025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